**선교적 교회: 도전과 기회**

**(The Missional Church: Challenge and Opportunity)**

* **Darrell L. Guder**

선교적 교회의 주제 가 무엇을 뜻하며, 또한 무엇을 뜻하지 않는지를 알 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교적 교회로서 어떠한 기회들이 주어졌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주제들을 다루고자 한다.

1. **선교적 교회: 도전 (The Missional Church: The Challenge)**

먼저 1998년에 북미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의 제목 이기도 한 선교적 교회의 토론을 위한 간단한 조사를 나누며 시작해 보고자 한다. 선교적 교회의 주제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신 분들에게는 어쩌면 조금은 반복된 내용일 수도 있다. “선교적 교회 (Missional Church)”라는 제목의 책은 6명의 선교학 자의 보고로 쓰여진 책이었다.

복음과 문화 연대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 의 후원 아래 모인 학자들은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이 제시한 충격적인 질문인 “서양 기독교 국가(Western Christendom)의 결말과 후기 기독교국 의 시대를 맞이하며 어떻게 서양 교회들은 다시 선교 의 교회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서양 기독교 국가들 의 문화적 영향을 받은 현대의 선교 지역에서 나타난 도전들에 반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 주어진 대답들은 새로운 신학적 견해나 선교 교회론이 아니었다. 반면 급진적으로 세속화 되어가는 서양 사회에서 신실한 그리스도 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명 속에서 신중하게 논의 되어야 할 진지한 신학적 주제들에 관한 주장이었다. 이것이 전체적인 선교적 교회의 토론들을 이끌어 나가는 기본적인 도전이기도 하다.

“선교적(missional)”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용어 였으며, 교회의 목적, 본질, 실천의 신학적 토론의 중심을 이끌기 위해 선택되었다. 이러한 토론은 기독교 운동 (Christian Movement) 중에 특별히 “서양 기독교 국가 (Western Christendom)”라고 불리는 오래된 문화와 지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급속적이며, 때론 당황스러운 변화에 대한 명백한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분명히 이 주제의 초점은 북대서양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기독교 국가들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1998년에 출간한 출판물 (1998 Volume)의 소 제목인 “북미 교회들의 보내심을 위한 비젼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은 큰 의미를 갖는다. "서양 기독교 국 가"의 큰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문화 이외의 국가들을 주제를 다루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주제와 책이 국제적인 관심을 얻게 되었으며, 서양 기독교 국가 이외의 많은 나라들에서 이러한 주제들이 선택되고 발전되는 것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예를 들어, 이 책은 한국어로도 번역되었고 또한 제가 올해 초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선교학자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의 참석하게 됨에 큰 보람을 느꼈다.

선교적 교회의 토론에 직면하는 도전들은 무엇일까? 도전들을 정의하기 위해 우리들의 관점에 서 선교적 교회의 신학적 발의들을 깊게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실들을 먼저 제시하며 시작할 것이며 이 사실들의 요약은 우선순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 사실들은 서로 연결되었으며, 서로 보충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요약들은 선교적 교회 주제 발의들 안에 포함되어 있다.

사실 하나: 서양 기독교 국가는 결말을 맞고 있다. 기독교적 믿음과 기독교적 교회들의 주도권은 서양 문화에서 급속도록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복잡하다. 이들 중심 이슈 중 하나는 미국의 헌법 안에 유명한 문구들로 사용된 "종교의 설립" (the establishment of religion)에 대한 종교와 정부의 공식적으로 정의된 관계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이외에도 구조의 변화들이 있다. 기독교 운동의 문화 형성의 역할이 감소하고 있고 수세기 동안 영향을 주었던 서양의 기독교 교회들은 더 이상 윤리적, 사회적, 문화적 권위를 갖지 못하고 있다. 교회들의 "목적, 본질, 실천"에 대한 거대한 결말 가운데 "paradigm shift, 패러다임 인식체계의 구조적 변화"의 중심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사실 콘스탄틴의 기독교 국교 재정 이전의 초기 기독교 운동 때보다 우리는 훨씬 더 가까운 심각성에 놓여있었다. 오늘날 우리 자신을 베드로전서에 말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소개해도 어색하지 않다. 이 사실은 우리를 차별 받고, 심지어 핍박 받는 소수의 일원으로 세계 주변에서 구성되고 있는 이 시대의 수많은 기독교 공동체들과 거대한 연합 가운데 연결되게 한다.

사실 둘: 서양의 기독교 국가들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북미대륙 이외의 기독교 운동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양 기독교 문화의 주도권은 세계 곳곳의 기독교 교회들이 상황화(contextualization) 와 비교문화 해석 (Cross-cultural translation)의 이슈에 대한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 감소하고 있다. 성경이 더 많은 언어로 보급 되어짐에 따라, 기독교 운동의 문화적 다양성은이 땅의 모든 권세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영광스러운 간증들로 일어나고 있다. 이로써, 우리는 마태복음의 위대한 위임명령 (the Great Commission)에서 주어진 모든 족속의 제자(disciple the ethnicities)를 삼는 권한을 얻게 되었다. 기독교 운동의 세계화와 맞추어 기독교 유산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현대 선교사 운동의 포스트 식민지주의 (Post-Colonial)의 비평은 우리가 직면하는 선교적 도전의 하나인 것이다. 오늘날 선교활동은 더 이상 오래된 기독교 국가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상대적으로 젊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주도되고 있다. 국제적 현실 가운데 한국 장로교의 급속한 성장의 역사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땅 끝까지 기독교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 또 하나의 증거로는 빠르고, 매우 다양하게 전파되고 있는 오순절 운동을 언급할 수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교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주의하며 볼 수 있다. 현대의 선교사들이 북대서양 사회로부터 세계로 파송되어졌다면, 이제는 기독교 운동이 반대로 매우 어려운 선교지로 인식되는 서양의 문화로 역이동하고 있다.

사실 세번째: 기독교 선교의 정의와 활동 모두는 기독교인들 사이에 열정적인 토론의 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에서 여러가지의 주제들이 만들어지는데 성경학자와 역사학자들 은 사도적 시대(Apostolic period)에 등장한 기독교 선교의 우리의 이해를 새롭게 해석하고, 확대 해 주었다. 점점 분명해진 사실은 사도적 선교의 목적은 개인 영혼의 구원이기보다 증인된 공동체의 형성이었다는 것이다. 오순절 이후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민족들의 치유와 기독교 공동체의 발생을 중심으로 복음은 진실하며, 모든 이에게 주어졌다는 증거를 세계에 전파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은 그저 교회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돌아볼 때 하나님 은 그를 부르셨고, 떠나게 하셨으며, 훈련하시고, "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그의 사람들을 보내셨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의 첫번째 서신에서 분명히 밝힌 것처럼 이 선별된 공동체는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것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벧전 2:9) 분명한 사명을 위한 공동체였던 것이다. 이것이 선교의 성경적 토대가 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고후 3:2-3). 너희는 화해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사라 (고후 5:17ff 이후의 구절들). 사도적 성경 구절들은 기독교 공동체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형성되어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선교의 사도적 이해가 널리 퍼지는 가운데, 기독교 국가들의 선교의 역사적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기독교 국가의 신학적 유산의 비판과의 대면은 선교적 교회의 토론에 있어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간결하게 말한다면, 서양의 기독교 국가들은 긴 역사 속에서 선교의 역할을 반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학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교회론과의 연결에 있어서는 선교가 중세시대부터 철저하게 배제되어 왔다. 개혁시대와 현대 기독교의 발전에 있어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선교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많은 주석가들이 언급한 것처럼, 마태복음 28장의 위대한 사명은 기독교의 수세기 동안 교회의 본질과 임무와 연관하여 토론 되어지지 않았다.

사도적 선교는 기독교의 형성에 있어서 공식적인 서양 종교, 유럽의 로마 카톨릭 제국의 효과적인 확장으로만 간주되었다. 윌버 쉐크 (Wilbur Shenk)가 "기독교 국가/시대는 선교가 없는 기독교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윌리엄 케리가 1792년에 그의 유명한 "이교도들의 개종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기독교인의 의무에 대한 연구"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선교의 토론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러한 현대 선교사 운동은 선교를 교회의 목적과 행동의 측면에서 보는 20세기에 들어와 많이 화자되고 있는 신학적 제안들로 다시 돌아가게 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선교적 교회의 연구는 선교란 단지 교회의 프로그램의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행동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선교는 단지 기독교인들이 다른 문화에서 경험하는 일들이나 미전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만 정의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선교의 중요한 설명임은 분명하다. 20세기 말에 들어와서 선교란 하나님의 선교 – the Missio Dei – 로 이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또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목적성(purposefulness)을 말하는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다.

하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목적들로 드러났으며, 그 하나님의 목적들은 치유와 화해와 용서이다. 선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보내심"인 것이다. 그리고 이 보내심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자신 이 아들로 오셨으며, 성부와 성자로 인해 보내지신 성령님이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깨어 진 세상을 향해 증인되도록 자기의 백성들을 부르 시고, 훈련하시고, 보내시는 삼위의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 보내심의 중심 주제는 부르심의 공동체, 에클레시아(Ecclesia) – 다시 말씀드리고, 계속적으로 강조 하지만 훈련되고, 보내지기 위해 성령 안에 모인 교회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칼 바르트(Karl Barth)는 교회와 모든 기독교인의 부르심은 증인됨(witnessing)이라고 주장하였다. 그것이 바로 선교가 교회의 핵심적 본질이며, 많은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취급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이다. 선교는 단지 교회 성도들이 그들 자신은 뒤로하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돈을 보내는 일이 아니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존재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전하기 위해 성령 안에 훈련되는 것이다.

선교가 더 이상 교회나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의미로 정의 되지 않아야 한다면,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죄에 대한 개인 구원의 메세지가 감소 되어지지 않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지속되는 우려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의무가 신실하게 전해지는 것보다 영원히 지내는 곳만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환원주의적 (Reductionistic)" <환원주의(reductionism,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단일 레벨의 더 기본적인 요소로부터 설명하려는 입장, 과학철학에서의 실증주의적 입장 - 역자 주 ) >"의 한 종류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점은 유효하지만 복음은 단지 개인의 구원이라는 차원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으며, 교회의 부르심은 그러한 구원받음에만 국한해서는 안되는 위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국가의 결말이라는 깊은 인식 가운데, 기독교 운동의 방향의 국제적 전환과 선교와 교회의 강력한 논의들, 그리고 선교적 교회의 토론들은 교회의 본질과 목적, 그리고 실천에 있어 섬기도록 부르 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로 정의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선교 (Mission)" 라는 단어에 "적(al)"이라는 말을 붙임으로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의 이해와 실천 속에 빠져 있는 성스러운 선교적 목적의 신학적 부재를 고치려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저 많은 교회의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부터 선교를 구해내려는 의지인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보내지고, 그분의 권능을 받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빛과 소금으로, 누룩으로, 증인과 대사로, 그리고 그의 편지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매주일 이미 주님의 치유하심 아래 있는 세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내진다. 우리의 모임의 목적도 바로 이 보내심이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으며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주님의 치유 목적을 수행할 증거가 되는 신뢰 할만한 증인들인가 아닌가에 맞추어져야 한다. 이제 선교적 교회의 신학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실천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도전들은 기독교 국가 안에서 수천년 동안 확고하게 다져진 패턴 양식과 연결되어 있다.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대한 참여를 시작할 때, 다양한 종류의 저항들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의 흐름들을 형성하는 이러한 사실들은 위협적인 일들로 다가올 수 있다. 변화는 종종 누군가에게는 문제가 되기도 하며, 민감한 상호작용과 인내를 요구하기도 한다. 빠르게, 교회 내부에 집중되어진 "기본 방식(Default mode)"이 가동될 수도 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다양한 형태의 오랜 환원주의(Reductionism)의 후렴구인 "나는 단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를 찾아요" 와 같은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위험은 "구도자가 친숙한 교회 (seeker friendly church)"에 복음을 구도자에게 맞추어 희석시키는 현실에 빠지게 한다. 이것은 우리를 공동체의 순례의 길에 침투하는 환원주의자(Reductionist)를 용납하며, 사회현상의 압력에 쉽게 우리의 사명을 타협하는 유혹에 무너지게 한다. 우리는 담대하게 맞서야 한다. 이러한 유혹은 교회를 망가뜨리며,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이유의 현실로 생각하게 만든다. 이러한 복음과 멀어진 성공의 정의를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문화에 더욱 익숙해지기 위해 윤리적 타협에 유혹 받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은 사회적으로 수용받기 위해 진리의 양날 칼을 무디게 할 것이다.

우리는 선교적 신실함에 방해하는 것들을 용납하는 많은 변명의 방법을 찾게 된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선교적 신학과 실천을 소개하는 방법을 찾는 동료와 대학원생들과의 소통 가운데, 나는 이러한 도전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축소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충분한 선교적 변화를 위해 쉬운 방법들은 아니다. 그것은 강요할 수 없다. 나는 "교회의 지속적인 회심 (The Continuing Conversion of the Church)"이라는 책 속에서 이러한 도전들의 몇 가지 범위들을 언급하였다. 회심은 우리가 유도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오직 성령의 역사함이지 우리가 조정하거나 계획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 회심 가운데 우리는 막는 것들을 바로 볼 수 있는 성령의 계시를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님이 품게 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받아들이도록 주님께 간구할 수 있다. 나의 직감은 이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도전 은 선교적 신실함에 방해하는 기독교 국가 오랜 사고방식의 한계들과 무기력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확신하기는 주님의 방법은 훈련되어지며, 철저하며, 말씀으로 위협을 무릅쓰고 나아가 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선교적 교회의 발생에서 큰 가속도로 발전되었던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는 선교적 성서 형성에 있었다.

이 시도를 선교적 ‘성서해석학 (Missional hermeneutics)’라고 부른다. 이것은 이미 초대 사도의 선교 전략에서 믿는 자들의 신실한 증인된 공동체를 근거로 했다는 사실에서 발생 되었던 것 입니다. 복음화의 과정은 선교의 형성으로 급속히 발전하면서 회심자들은 말씀의 증인이 되었다. 초대 기독교의 역사에서 제자들의 성인 교리교육은 개인의 선교 인식을 이끌어가는 교 회의 방법으로 쓰여졌다.

신약의 서신서들은 사도의 저자들이 초대교회의 증인된 공동체에게 선교적 신실함을 가르치고, 이끌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했던 교리 교육의 방법이었다. 사복음서 는 새로운 기독교인들과 오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며, 사도적 보내심을 위해 준비하는 "예수님과 학교 가기(School with Jesus)"의 자료이기도 하였다.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 음의 가치로 공적인 삶과 직장의 삶을 이끌어 가 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27은 그러한 복음의 가치가 그들이 나누는 말씀과 이 말 씀으로 삶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행동에서 일치되 어 표현되었던 것이다. 신약의 전반에 걸쳐서 십자가와 빈 무덤의 복음에 반하며 형성된 공동체를 대표하는 탁월한 사랑에 대한 끊임 없는 강조가 나타나 있다. 신약의 명령들은, 함께 택하여진, 신실하며, 순종적인 기독교 증인들의 형성의 종합적인 과정 속에 있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도전들은 같은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마주해야 한다. 선교적 신실함에 대한 저항들은 성서의 말씀을 통 해 시험되어져야 한다. 선교적 교회 계획의 발생을 이끄는 도전들은 줄어 들지 않고, 더욱 심해지고 있다.

기독교 국가로 정의되어진 국가들은 점점 종교적 세속화와 종교적 다원화가 되고 있다. 우리의 이웃은 전통적인 기독교 교회가 아닌 모스크(mosque)나 사당(shrine), 절(temple)에 더욱 참 석하고 있다. - 종교와 어떤 연관을 갖고 있다면 말이다. 인구 통계학자들에 의하면 종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비율도 급속하게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사회의 공공장소에서 교회를 위한 유익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기관을 반갑게 여기지 않는 마을과 도시의 지역 설정 위원회 (zoning boards)는 교회의 장애물적인 존재가 되었다. 교회가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는 곳으로 여겨질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 때문에 발생할 교통 정체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 공동체는 앞으로 정부가 법적 유효성에 문제가 될 사항들을 검사하는 상황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주변에 놓여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포스트 기독교 국가 선교지역에서 대면하는 복합적 어려움들은 몇 세기에 걸친 우리들 자신이 만든 문제들이다.

20세기 중반에 프린스톤 신학교의 총장을 역임한 죤 맥케이 (John Mackay)는 1928년에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국제 선교사 협의회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에서 교회의 복음적 사명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이 모임에서 그는 그 시대의 선교사 리더십에게 "들려지는 권리를 얻으라 (earn the right to be heard)"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히 세속화된 서양 사회에서 기독교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생각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해 졌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그분의 선교에 참여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를 분별하도록 간구해야 한다. 이러한 분별력을 다루기 위해서, 두 번째 강의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는 선교적 교회 계획에 놓여진 기회들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다.

1. **선교적 교회 : 기회 (The Missional Church: The Opportunity)**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인 기독인들은 결코 비관주의자가 될 수 없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 때 제자들은 배가 결코 가라앉을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놓치고 있었다. 그 진리란 예수께서 배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다. 교회를 배라고 한다면, 그 배 안에 약속에 따라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 때문에 그 배는 항구에 무사히 이르기 까지 안전할 수 밖에 없다. 비록 항해는 거칠고 힘들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배는 문제 없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앞선 강의에서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가 직면한 도전들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다 줄만한 한 가지 사실이 남아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절망하는 것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다. 또 산 소망을 가진 자, 곧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 줄어들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위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대신 우리 앞에 놓인 기회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인구에 급격한 지형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미국의 기독교는 쇠락해 가고 있다. 우리는 선교와 교회, 둘 다에 대해 심각한 근본적인 논란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도전들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지금보다 더 나은 길, 곧 성령께서 우리의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 보여주시는 바로 그 길이 될 것이다. 교회는 지금 어쩌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유랑하던 자들과 처지가 같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 긍휼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 또 교회를 향한 그분의 치유 목적들과 언약의 부르심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기독교가 쇠락해감에 대해 슬퍼만 하기보다 우리는 이 새로운 국면을 적절히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 거기에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기독교 유산들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할 것과 거부해야 할 것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법을 알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 유산이라는 것이 정말 복잡하게 뒤엉켜 있기 때문이다. 바르트가 인간 문화를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혼동” 의 상호작용으로서 정의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많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제투성이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오늘날의 신실한 증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혼동을 구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전혀 자격 없는 자들이 그의 증인들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실처럼, 이 혼란스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적 임재를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임을 우리 스스로 잘 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고, 전혀 합당하지 않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비전을 열망하며 구할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교적 기회들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용기를 얻는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기회들에 대해 고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앞선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러한 역사적 교훈들은 우리의 선교적인 신앙인들에게 용기를 더해 줄 것이다. 우리가 처한 구조적인 변화 (paradigm shift)”는 우리로 “처음으로 돌아가기”를 촉구한다. 그건 신학적 훈련에 있어 높이 평가되는 바르트의 잘 알려진 방식 (council)이다. 그건 우리로 탁월한 선교적인 감각을 갖도록 해 준다. 성경에 등장하는 제 1세대의 사도적 선교 (The apostolic mission)는 기독교 증인들의 역사적 출발이 된다. 성령강림 이후,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적으로 행하는 변화를 이루어 낸다. 그 명령이란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이다. 그 사도적 증인 (That apostolic witness)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더불어 그 메시지의 본보기(model)이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모이는 모든 기독교 공동체는 이 사도적 선교사명을 이어가게 되어 있다. 그들 모두 가운데 함께하시는 성령께서 그들로 복음에 대한 의무에 대해 듣고 반응하며 순종하도록 하시기 때문이다. 이 예수님의 선교적 명령에 중심을 두고 있지 않고, 집중하지 않는 모든 기독 공동체는 진짜 교회라 할 수 없다.

우리 앞에 놓인 선교적 기회들은 우리가 몇 가지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하고자 할 때, 새롭게 열릴 수 있다. 이 질문들은 분명 어려운 질문이지만, 우리를 씻어 깨끗해 해주는 질문들이다. 우리가 아는 메시지, 그것이 진정 성경적인 복음의 충만함을 잘 지켜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직업적인 이해와 실천에 있어서 이 세상 문화의 압력에 의해 양보하고 타협해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행한 어떤 다른 구조적인 헌신에 의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타협해 있지는 않는가? 증인으로서 우리의 직업을 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라 할 수 있는가? 복음에 대한 환원주의 (reductionism,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단일레벨의 더 기본적인 요소로부터 설명하려는 입장, 과학철학에서의 실증주의적 입장<역자 주>)나 복음을 무능하게 하고자 하는 세력에 맞서 신실한 증인이 되기 위해 싸우며, 이제라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서, 근본적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의지적 결단이 있는가? 이제 좀더 깊이 그 선교적 기회들에 대해 알아보고, 복음의 영향력을 감소하게 하고, 복음의 역동성을 제한한 일들에 대해 회개하자. 나는 서구 사회에서 복음의 영향력이 감속하게 된 주요한 문제가 개인구원에 천착하고 내적인 구원만을 위한 교회의 구조적인 운영에 있다고 정의 하였다. 복음에 대한 환원주의적 성향을 인지하는 것, 그것을 거부하는 것, 거기에 대해 회개하는 것, 그 속박으로부터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회이며, 그것은 로마서 12장 2절의 사도바울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성경의 핵심 가치들을 되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목회 활동과 사도적 선교사명을 펼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구심점을 되셨다는 사실과 직면할 필요가 있다. 복음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목적에 대한 복된 소식이다. 마가복음은 기쁜 선포로 시작된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1:14). 공관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통치의 개입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주제이다. 정말 시급한 문제인 사도적 선교사명을 위해 예비된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과 진실로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나신 자라는 사실(골1:15)을 단단히 붙잡아야만 했다. 공관복음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조점을 두는 반면, 서신서들은 예수의 주권에 대해 강조한다. 이 두 가지는 복음에 대한 이해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들임과 동시에 상호 보완적인 것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이해가 서로의 가치를 희석시킨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나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예수의 주권”이라는 가치를 희석시키는 것은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있어왔으며, 이러한 환원주의와 맞서 우리는 싸워야만 합니다. 미국 장로교회(PCUSA)는 이러한 환원주의와 씨름하는 것을 계속해 오고 있다. 1980년대, 19세기 남북전쟁의 발발로 분열되었던 남. 북 장로교회가 마침내 다시 통합이 되었다. 통합의 과정에서, 교단은 새로 형성될 통합 교단이 집중해야 할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인식하고자 하는 작업들을 진행하였다. 수개월 동안 그 과정을 진행하면서 토론과 연구가 계속되었고, 상당량의 기획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결과로 진정한 합의와 일치를 이루는 교단이 발족되기를 바랐다. 이 모든 과정 이후,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다. 절대 다수의 장로교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복음주의,evangelism)이 새롭게 시작될 교회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과정에는 많은 뒷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다룰 수는 없고, 다만 교단의 지도자들은 ‘사회정의에 헌신하는 것’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 논의의 과정을 마감하면서, 그들은 교단이 두 가지의 우선순위를 견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 “복음 전도와 사회정의(evangelism and social justice)”. 이 양면성은 서구 기독교의 뿌리깊은 역사였고, 이 것이 여기에서도 재현된 것이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양분은 문제성이 많다. 왜냐하면 그것을 복음에 대한 또다른 환원주의의 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교회의 가능성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일이다.

교회의 속성, 목적, 활동들을 정의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포괄적, 통전적인 헌신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이분법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복음의 핵심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무시하도록 영향을 끼치는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분법은 서구 기독교에 아주 깊이 뿌리내려온 것이다. 선교적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해야만 한다. 복음(gospel)에 대해 우리가 이해할 때, 복음전파의 일(evangelism)이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통치 정의(social justice)에 반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복음의 은혜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가? 만약 우리가 십자가에서의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자유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증인이나 대사(agents)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 우리가 그 일에 증인이 되는 것은 우주적인 치유(cosmic healing)를 일으키는 행위이며, 완전함(wholeness)을 회복하는 일이 되는데, 이러한 회복의 일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와 빈 무덤에서 완성하신 것이다. 이 거룩한 구원 사건은 진실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어 주는 일이며, 그것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이 것을 매우 분명하게 하셨다. “그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특별한 권능은 이 세상을 치유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모든 예수의 증인들은 이러한 치유가 일어나는 일에 증거로서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러한 잘못된 이분법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일이며, 여기에 주의를 기울임에 따라 우리로 선교적 교회로 회복되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것은 “예수가 의도하신 공동체”의 급진적인 성격에 일치하고자 함이다. 우리는 로마 카톨릭의 신약학자인 게하르트 로핑크(Gerhard Lohfink)의 덕을 보았다. 그는 이 문제가 되는 주제를 연구했다. 그는 아주 분명하게 예수가 그의 제자들을 선교 공동체를 위해 준비해 두었으며, 그 선교적인 공동체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치유와 회복의 일들이 일어났음을 보여 주었다. 그 공동체는 인간세상에서 일어나는 권력의 구조를 뒤집어놓은 것이었다. 그 공동체는 요한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신약성경에는 많은 명령과 의무에 복종하며 살도록 종용받고 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요한15:12). 예수께서 의도하신 공동체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이루었던 그 관계를 계승해 나가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증인이 되도록 하신 목적이 되며, 이것은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방식과는 극단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다. 사도바울도 이 공동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것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에 따른 가치대로 저희 삶을 살아야 한다(엡4:1).”는 것이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과 기회들에 대해 살펴 보았다. 교회의 성질, 목적, 행위가 선교적인 비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 이유와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고, 사도적인 선교사명(the apostolic mission)에 기초한 교회의 역할에 대하 점검해 보았다. 이 작업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이 급진적인 공동체에 강조하셨던 성경 말씀에 의해 도전을 받는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의미가 아주 중요한 것임을 재확인하였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잘못된 이분법, 곧 “복음 전파와 사회정의”로 복음을 쪼개고자 하는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궁극적인 선교 비전에 대해 확인을 했다. 복음에 대한 모든 환원주의는 이제 동정이나 관심 따위는 받을 필요 없이, 정결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부활의 믿음에 그 자리를 내어주고 사라져야 한다. 비록 나는 제가 한국인이나 재미 한국 문화에 대한 전문가적인 해석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NCKPC 총회로 모인 것이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재도약의 기회가 있고, 거기에 여러분의 삶이 있고, 부르심이 있다는 확신을 갖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 미국 교회 안에 있는 한국인과 재미한국교회가 미국 교회 안에서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자극을 주며 올바른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들이 있을까? 내가 몇 가지의 제안을 하고 싶다.

과거 수 십 년 동안 선교학의 주된 주제 중 하나는 상황화(contextualization, 선교를 진행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질적이지 않고, 본인들을 위한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자 주)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선교신학의 용어로서 주된 이슈가 되어 왔고, 비교문화적(cross cultural) 입장에서의 현장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사도적 선교사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부터 교회는 증인 공동체로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려는 의도에서 세워졌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비교문화적인 경계가 있는 곳에서는 새로운 문화와 언어로 복음이 해석(translation) 될 수 밖에 없게 한다. 라민 싸네(Lamin Sanneh, 아프리카 감비아 출신으로 예일 대학교 신학부 교수:역자 주)는 기독교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끊임없는 복음의 현장성(infinite translatability)이라고 강조하였다. 복음의 역사를 보면 문화와 언어적인 장벽을 넘어서 계속 확장해 갔는데, 복음이 전파 된 곳이 매우 다른 상황과 현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진정성은 훼손되지 않고 잘 이어져 왔다는 점이다. 사실 이 점은 신약 성경 안에서 잘 묘사되어 있다. 마침 몇 주 전이 성령 강림주일이었다. 그 때의 사건을 보자면,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었다. 신약 성경은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것은 비교문화적인 상황에서의 복음의 해석의 요구와 그 위기에 대한 예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사이에는 비교문화적으로 볼 때,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고, 사도적 선교사명을 감당한 이들은 거기에 성실함으로 반응하였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교사들의 사명은 끊임없는 복음의 해석 (continuing translation)과 상황화 (contextualization)를 이루어 가는 것이었다.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이 과정에서 선교적 교회가 집중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증인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문화 안에서, 또 그 문화를 넘어서서 모두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뉴비긴 (Lesslie Newbigin, 영국의 선교학자, 인도 선교사, 주교 : 역자 주)은 강조하여 말하기를, 선교사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타 문화권에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결코 그런 식으로 정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탄식하기를 많은 서구 선교사들의 매우 불완전한 교회학(deficient ecclesiology)을 가지고 그들의 선교사역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새로 생겨난 기독교 공동체는 주로 “구원받은 영원들을 위한 저장소”로서 기능하였고, 복음에 대한 성숙한 이해나 선교적 역할에 있어서 크게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의 3분의 2에서 주된 선교적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건 선교사역이 인지되고 실천적으로 해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황화(contextualization)의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문제, 곧 비교문화적 선교에 있어 오늘날 신경이 쓰이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다. 선교신학이 상황화를 언급할 때 몇 가지 신학적 질문들이 함께 나오게 된다. 과연 복음을 그들의 상황에 맞춰 해석하는 것이 선교사들을 위한 필요에 맞추어지는 것은 아닌가? 또 복음이 복음의 가치에 상응하지 않는 문화적인 부분들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가? 그런 예들은 수도 없이 많다. 성차별, 노인차별, 계급차별과 같은 문화적인 사회 구조들은 종종 거기에 도전하여 맞서기 보다는 그냥 순응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다. 물론 기독교 세계에서 형성된 사회에서도 그런 상황적인 탈선의 예가 많이 있다.

에큐메니칼 교회에서의 공통된 작업이라면 “복음의 진정한 가치가 잘 살아 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검사해야 하는데, 이것은 전하는 자나 받는 자에게나 상호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함께 세워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북미의 한국 기독교는 특별히 중요한 선교적 기구가 될 수 있으며, 변화와 실천에 있어 훌륭한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든 상응하는 방식으로든 상황화의 이슈에 접근하는 것은 교회 보편적인 선교적 공교회의 주요한 관심이다. 그 논의는 보편성에 대한 고대의 기준을 다시 새롭게 바꾸는 것이며, 이것은 특별히 교리를 형성하는 기관으로서 특별히 중요하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catholic”이란 말을 “universal”이란 말로 번역한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어를 파싱하여 분석해 본다면,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잡아 끄는 신학적인 역동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어원은 “Kat’holon”입니다. “the whole”, 혹은 “the center” 혹은 “the essential”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전치사처럼 앞에 있는 “Kata (~아래,~반하여, cata의 이형: 역자주)”와 명사 “holon (부분적 전체)”의 관계성은 선교적인 의미에서 흥미를 끈다. 이 말은 사도적인 교회와 초기 선교 운동에 적용되면서 발전되었고, 그러한 교회의 “catholicity”는 “holon”들, 곧 사도적 사명,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 그리스도의 통치와 같은 복음의 내용들을 끝없이 해석(translatability)해 가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명사 “holon(전체)”은 수많은 “kata(반하는 것)”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이 새로운 증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복음의 해석(문화적 경계를 넘어선)을 의미한다. 오직 하나의 “holon”이 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선포하고 증언하는 하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한 다양한 문화와 언어로 성육화된(incarnated) 복음의 메시지들이 있다. “kata”라는 과정 안에서 성령님은 믿음의 신실한 공동체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고, 다시 새로운 곳과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담당하도록 하신다.

나는 우리의 한국 장로교회 동료들의 현장감 있고, 역동적인 선교적 헌신에 대해 아주 높게 평가를 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에 의해 이곳 북미로 “보냄을 입은 자”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란다. 어려운 변화와 도전의 시대이다. 서구 기독교가 찾고 있고 필요로 하는 정말 신실한 증인들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



데럴 구더(Darrell L. Guder) 교수와 함께 (NCKP 총회 / Okhlahoma, 2016. 6)